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㉔

不知空本無空 唯是如來圓覺明淨之心  
부지공본무공 유시여래원각명정지심  
同處空通法界 該衆生心 無間斷處  
동허공변법계 해중생심 무간단처  
一切衆生 無明分別之心  
일체중생 무명분별지심  
當處虛明 與十方諸佛 同一智海  
당처허명 여시방제불 동일지해  
同一法性 延爲衆生 終日其中行履  
동일법성 지위중생 종일기중행리  
而自背負 愚癡耳 不知斯旨者  
이자배부은먹이 부지사지자  
以執吝貪著之心 求佛境界  
이집인탐착지심 구불경계  
如將方木 逗圓孔也  
여장방목 두원공야

어떤 수행자는 성질이 들뜨고 허황된 사람도 있어, 심법에 대해 들고는 그대로 믿고 수행하지마는 작은 것에 만족하여 더 큰 세계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견(知見)이 원만하지 못하여 단지 자기 본성만 믿고 만행(萬行)을 뒤지 않으며, 또한 정도(淨土)를 구하지 않고 왕생을 구하는 사람을 보면 업신여기는 마음을 낸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불법(佛法) 안에서 마음을 쓸 줄 모르니 많은 장애가 있게 되니 참으로 원통한 일이다. 만약 아주 낮은 근기의 사람으로서 지혜의 눈을 열지 않더라도 부처의 명호를 부르며 회유(回有)함을 찬탄할 줄 안다면 이 어찌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수행한다 하여 허물할 수 있겠는가.

或有行者 受氣剛大 情緣最深 聞此心法  
혹유행자 수기강대 정연최심 문자심법  
不知措意之處 然能觀彼佛白毫光明  
不知措意之處 然能觀彼佛白毫光明  
부지조의지처 연능관피백호광명  
或觀梵字 或誦經念佛  
혹관범자 혹송경념불

공(空)이라 하지만 본래 공이라 것도 없다. 단지 여래의 밝고 청정하게 깨달은 마음이 허공처럼 법계에 가득하여 끊임없이 중생심을 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일체 중생의 무명분별심(無明分別心)도 그 자체는 비고 밝아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와 동일한 지혜의 바다이다

본성만 믿고 萬行을 닦지 않으면

많은 장애가 생겨 참으로 원통

며, 동일한 법성이다. 다만 중생들이 동일 그 가운데서 살면서도 스스로 그 은덕을 저버리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집착하는 마음으로 부처의 세계를 구하는 것이니, 마치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맞추려는 것과 같다.

如是行門 專精不亂 能調妄想  
여시행문 전정불란 능조망상  
不致惑障 梵行成建 此人初從事行  
불피혹장 범행성건 차인초종사행  
感應道交 終入唯心三昧故  
감응교도 종입유심삼매고  
亦是善知佛意者也  
역시선지불의자야

或有行者 稟性浮僞 聞此心法  
혹유행자 령성부위 문자심법  
信樂修習 然得小爲足 不可決擇  
신락수습 연득소위족 불가결택  
知見未圓 全恃本性 不修萬行 亦  
지견미원 전시본성 불수만행 역  
不求淨土 見求生者 而生輕慢  
불구정토 견求生者 而生輕慢  
此上二人 於佛法中 不善用心  
차상이인 어불법중 불선용심  
多有滯障 可悲可痛也 若是最下根人  
다유滯障 가비가통야 악시최하근인  
盲無慧目 而知稱佛號則數其希有  
맹무혜목 이지칭불호즉란기희유  
豈以不知佛意修行 爲過哉  
기이부지불의수행 위과재

또 어떤 수행자는 기질이 굳고 크며 감정도 깊다. 이런 사람이 심법을 들으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나 일단 부처의 백호광(白毫光)을 관하거나 범자(梵字)를 관하거나 경전을 외거나 염불을 하라 하면 이런 수행에는 산란함이 없이 정신을 집중시킨다. 그래서 망상을 다스리며 번뇌의 장애를 받지 않고 청정한 범행(梵行)을 이룬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도(道)와 서로 감응하여 끝내는 마음의 삼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하겠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가까이서 뵈 큰스님

종성스님

임제선원 조실

알음알이 놓음이 선문 철칙

해지기 전에 아주 잠깐  
답벼락에 기대었다 떠나간 나무 그림자  
처럼

出家한 사람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

풀더미 속에 앉아 풀더미가 되어버린 집  
문짝이 떨어지고 지붕에 별 비가 새고

땅 빈 집, 바람만 와서 자고 가는

섬광 같은, 달빛같이 사는  
(이상선시 출가 전문)

설악산 시인 이상선이 느닷없이 출가한 사람을 찾는다. 웬 연유일까? 시인이 찾고 있는 지붕에 별 비가 새고, 바람만 와서 자고 가는 '곳'에서 '섬광 같은, 달빛같이 사는' 출가인은 어디에 있는가?

서울의 답벼락에도 개나리가 노랗게 핀 4월의 한달 서울 봉천동 임제선원 조실 종성스님을 찾았다. 주택가 2층집, 열댓 평 남짓한 마루가 법당이다. 예서 인근의 서울대 교수들과 법조인들이 모여 법당을 나누고 좌선삼매에 든다. 번듯한 집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곳은 문짝이 떨어지고 지붕에 별 비가 새는 집이다.

"그 동안 바빴지?" 오랜만에 들르는 기자를 나무라듯 반긴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스님도 몸고생을 꽤 했다. 신경성 위궤양으로 이십일을 병원에서 보냈다. "이젠 괜찮아"하며 손사래를 치는 뒤로 성철·향곡·서암 스님이 앉아 파안대소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눈길을 끈다.

얼마 전 성철스님의 생각을 복원하여 준 공한 검의사 얘기를 꺼냈더니 "중공 법화에 일로 대덕스님들이 모였다 하는데, 그러한 자리라면 무엇보다도 평소 성철스님께서 역설하신 유지를 받들어서 부처님 만세정법의 표준을 세우는 중대한 일들을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노선승의 근황은, 정체성 상실 위기에 처한 조계종에 대한 걱정이다. 그러나 성철스님이 떠난 빈자리가 더욱 커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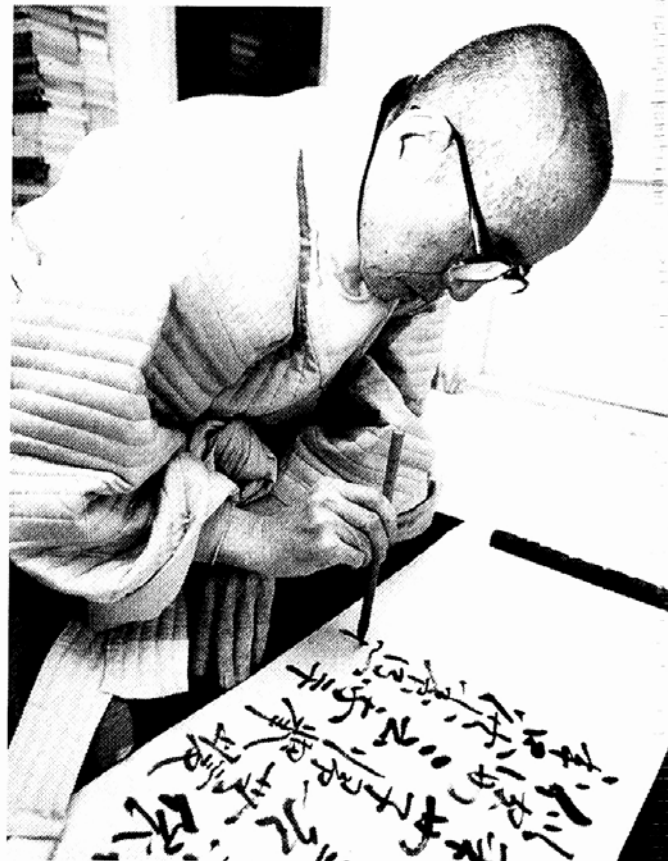
"우리 조계 후학들이 성철스님을 존경하는 참다운 의미는 부처님의 골수 심법(心法)인 조사가공을 부흥하기 위해 일생을 실천중을 통한 이론과 실지를 밝히신 최대

의 정안종사(正眼宗師)로서 말세의 후학들에게 방향하지 않고 부처님 정법을 따라서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데 있습니다."

마음공부의 핵심생명이라 할 수 있는 종지(宗旨)와, 마음공부의 올바른 계보라 할 수 있는 종통(宗統)과, 마음공부의 올바른 사표라 할 수 있는 종조(宗祖) 문제에 있어서 그 큰 한국불교 조계종총사상 성철스님 만큼 분명하고도 올바른 이론을 세우신 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 분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수행의 가풍을 세우고 법도를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스님의 뜻을 잇는 길인데, 요즘 안목이 없는 납자들과 학자들이 분별망식으로 종지, 종통, 종조 문제에 대하여 제멋대로 떠들어대고 있어요. 오히려 종단에서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노선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종지를 밝히고 종조의 종통을 계승하여 대중의 바른 안목이 되어야 할 총림의 방장이나 조실까지도 바른 안목이 없는 대중들이 세력을 결집하여 아무나 선출해 버리는 현상까지 비일비재한 실정이 되어버렸습



종성스님은 가르침을 청하는 불자들에게 선어족의 한 구절을 써주는 것으로 가르침을 대시하기도 한다.

봉천동 주택가 2층집  
열댓평 마루가 법당  
교수·법조인 법당  
좌선삼매 드는 곳

니다. 이는 불조의 정법해명(正法慧命)을 단절해버리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불법은 대중들의 견해보다 눈높이는 정안종사의 법으로 면면히 이어져왔다. 법을 잇는 중대사는 대중들의 숫자로 가늠하지 않았다. 구봉스님의 일화(九峯不肯) 구봉스님이 긍정하지 않음은 이 같은 불교만의 독특한 가풍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원 행사(淸原行) 스님의 4세손에 석상 경저(石叢慶) 스님이 계셨는데, 석상 칠거(石叢七去)라는 회두로 유명한 스님이 다. 즉, 휴거(休去), 열거(歇去), 냉추추거(冷漣去), 일조백천거(一條白練去), 고목한회거(枯木寒灰去),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 고묘향로거(古廟香爐去)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석상스님이 등언(等言)하면서 회상의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떠나시니 그때

대중들이 회상의 부조실로 있던 수좌를 조실로 추대했다. 그러나 당시 석상스님의 시봉 제자였던 구봉스님만이 이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봉스님이 그 수좌에게 물었다. "선사 스님께서 말씀하신 '쉬어 가고, 쉬어 가며, 한 가닥 흰 실을 길게 펴듯 하며, 한 생각이 만년 가듯 하며, 마른 나무와 한 채처럼 가며, 옛 사당에 향로처럼 가라' 하신 칠거 법문이 무슨 뜻인지 말해봐라."

이에 그 수좌가 '명일색변사(明一色邊事) 한결같이 순일무잡한 경지를 밝힌 도리'라고 답했다.

구봉스님이 말하되, "그것은 선사의 뜻이 아니다" 하고 그 수좌를 대중의 의사와는 다르게 오직 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그 수좌는 향 한줄기가 타는 동안 좌탈(座脫)하여 생사에 자유자재함을 보였으나, 구봉스님은 그 수좌의 등을 두드리며

"앉아 죽고 서서 죽는 일은 능하지만 우리 스님의 도리는 꿈 속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끝내 긍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불조의 정법은 죽고 살기까지 마음대로 하는 고참수좌의 공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하물며 이 도리를 세우고 논하는 데 있어서 어찌 분별망정(分別妄情)이 즉 끊듯 하는 대중의 구미대로 결정할 일이겠습니까? 예로부터 승단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집된 대중의 뜻이라 하더라도 정(正)과 사(邪)를 종사로부터 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법문중의 독특한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총림 선방의 방장과 조실의 책임은 방(方)과 할(轄)으로써 대중의 여러식음을 깨우쳐 올바른 공부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철스님께서도 생시에 <선문정로(禪門正路)> <본지풍광(本地風光)> <한국불교의 법법>의 3대 명저를 친히 저술하시고 문도

가정에서 환자를 잘 봉양 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희소식!!!

**중풍! 치매!**

정성껏 간호하고 내 가족처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전원같은 이곳에서 가족 모든분들께 행복을 안겨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는 병원

**동림한방병원**

대표전화 : 054-338-6100 / 휴대폰 : 011-829-6979

병원 전경, 병원 내부 복도, 환자 치료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2001년 3·4월호

**불교와 문화**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http://www.kbpf.org)

인터넷이 일반화된 정보제공이 아니라 방방질일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특별기고 - 제3의 수행법,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 호에 『불교에서 보는 제3의 수행법, 왜 문제인가?』라는 글이 나간 후 이 문제가 불교 정체성 문제로 확대되며 갖가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단순한 비방이나 자기 이해 변론에 그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① 화두선 수행자가 본 제3의 수행법의 문제점/상목 스님(무불선원 원장)  
② 이제는 중단이나 선방의 스님들이 말할 때 / 진원종(불교저술가)  
③ 제3의 수행법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 막상필(불교방송 포교제작팀장)  
④ 제3의 수행법은 필연적인 후세 / 동준 스님(목포 갈상사 주지)

성낙주의 문화재 소설 제1편 - 석굴암 아난 존자편 '미타의 사랑'

우리 문화재의 참가치를 일깨우고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깊이있는 성찰을 통해 이를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우리의 언어로 복원해 낸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문화재를 소재로 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는 우리시대 소설가, 성낙주 선생이 쓰는 문화재 소설!

컬러화보 사진으로 보는 - 인도 스리랑카의 불교 의식구

특집 한글대장경 완간의 의미와 발전적 비판

한국 불교사에서 한글대장경 완간이 갖는 의미를 알아본다. 또한 2001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전개되는 한글대장경 개역 및 전산화 작업을 앞두고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역경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전적 비판의 장을 마련하였다.

① 한글대장경 발원에서 완간까지 / 최철환  
② 절반의 성공, 한글대장경의 과제 / 김도영  
③ 한글대장경의 개역 및 전산화 작업 어떻게 하나 / 권집부

지상중계 - 2000 노법문학상 수상자 기묘승 전(高行僧)의 수상강연

각원간 불교와문화 전화 : (02) 719-2606, 팩스 : (02) 719-0552 인터넷 홈페이지 :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